

사설

자기혁신 통한 佛音 전파

— 불교방송 신임사장에 거는 기대

불교방송은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무변의 공간에 개우침을 퍼는 불음(佛音)이다. 뿐만 아니라 1천6백여년을 다져온 한국 불교 2천만 불자의 입이며 귀이다. 불교방송이 시작되는 날 우리 불자들의 마음은 억겁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불교발전의 큰 전환이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와 기쁨에 가슴이 벅찼다.

그동안 신심과 열심으로 개국과 경영에 견인차 역할을 한 장삼문 사장이 타계하고부터 불교방송은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내외적 불화와 운영의 난맥상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신심 돈독한 신도로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조해형씨를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하게 되었음에 불자들의 마음에 다소나마 안도감을 가지면서 새로운 기대로서 전망하게 되었다.

이에 신임 사장은 교계내외의 여망에 충족해야 할 임무를 갖고 신심으로 쌓은 지력과 전문경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방송의 새로운 도약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차체에 바람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포교는 불교의 생명선이므로 방송포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방송 본연의 사업을 위한 방송국 내부의 화합과 원활한 운영 뿐만 아니라,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로서 교계의 힘을 실은 좋은 방송이 되도록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참나에 변화하는 대중의 마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끊임없는 연구와 정진으로 불교문화가 대중생활에 파고들 수 있어야 하고, 때때로 당장 신심나는 소재를 찾아 항상 새로운 방송으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원활한 경영의 새신이다. 전

문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그동안의 침체된 경영을 자립할 수 있는 향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방송국이 어느 단계에도 의존함이 없이 뚜렷한 독자적인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인 사장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전체 구성원의 자기 혁신이 우선적으로 절실히 요망된다. 탄탄한 자립경영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육화사상적 상호 이해와 열사공공의 보살정신이 투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전국 지방망의 확충이다. 불교방송이 발족될 때 전국 방방곡곡의 불자들은 불음방송의 부른 기대 속에 심시발만의 정성어린 성금이 모아졌었다. 물론 수도권과 부산·광주권과 곧 개국될 대구·청주의 가청권을 추산하면 전 인구의 3분의 2는 청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 방송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열악한 현실이다. 당국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하여 산골 농어민 불자들이 부처님의 방송을 듣고 '깨달음의 사회화'에 동참할 수 있는 평등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교방송은 누구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한국불교 2천만 사부대중의 공유이다. 종단이나 진흥원, 출가나 재가가 각기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치우친 특점을 하려 해서도 절대 안된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중생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임을 되새기며, 이해와 협력으로 불교 발전을 위하여 부처님의 씨앗을 널리 뿌려야 한다.

특히 불교방송국의 구성원은 신임 사장의 경영의지를 충실히 따르고 화합하여, 불자들의 귀를 의식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신심나는 방송, 듣고 싶은 방송, 생활과 함께 하는 방송이 되도록 전력해주시기 바란다.

열린마당 공명선거

정책·인물 위주 선택 '유권자 의무'

월서 <불교공명선거제도위 위원장>

이번 4·11총선은 지방화·세계화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민주정치의 분수령으로 범국민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합 선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타락적인 선거운동이 기묘한 형태로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앞서 중단협상하 28개종단 대표자 스님들은 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는 중의를 보고 공명선거 제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선거신고센터(732-2611~3)를 개설한바 있다.

계도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 구현 △학연·지연·혈연등 연고주의 선거문화개혁 △정착 및 인물중

심의 선거풍토정착 △적법한 홍보 및 공정한 선거관리풍토 실현을 활동지표로 내걸고 불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량을 뽑아 지역주민의 민의와 여론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시케 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부여된 고유 권리이다. 이러한 막중한 권리를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유권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금번 총선을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지 못한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21세기를 맞이할 자격과 권리가 없을 것이다.

파사현정의 신장이 되어 중립자적인 입장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신회권 <지비의전화 사무국장>

한국에 민주주의가 도입된지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의 우리의 선거문화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역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불교계에도 평소에는 발길 한번 없던 정치인이 선거때만 되면 불자(?)라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사찰이나 불교단체를 찾으며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특히 불교가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는 표를 구걸(?)하는 발길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불교가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집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불교계에 대한 공약 또한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볼 때는 한편으로는 불교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으쓱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이전의 선거 형태가 금지철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자이나 불이주자는 무분별한 정리주의가 하나 더 가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불교가 여타 종교와 달리 실천(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불자에게 한국사회에서의 커다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남짓 앞으로 다가온 총선. 바쁜 선거문화풍토 정착을 통한 깨끗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우리 불자가 앞장서 실천할 때이다.

박희정 <주부·서울 독신동>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당은 다양한 선거 공약을 제시하며 표밭다지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선거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선거운동, 선심성 공약남발, 관공개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당은 유권자들을 적당히 속이고 유권자들도 적당히 속아넘어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학연·지연·혈연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일 것이다.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은 공명선거를 하자는 데 의미를 갖지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행동지침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얼마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발표한 여성유권자 10대수칙이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 △투표권 포기 △사생활 문란한 후보 뽑지 않기 △부정선거 공약 남발 배격하기 △항응제곡,기부행위 매수되지 않기 △자유 평등 인권존중하는 후보선택하기 △사생활 문란한 후보 뽑지 않기 △부정선거 전력있는 후보 뽑지 않기 등은 모든 유권자들이 잊지말고 실천해야 하겠다.

'돈안쓰는 선거' 감시 신고 철저히

조영식 <중앙선관위 홍보과장>

4·11 총선은 21세기를 여는 중요한 고비에서 실시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 선거이다.

통합선거법은 돈 안쓰는 공명선거를 제도적으로 확보한 법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명선거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의 공명선거는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냐의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는 지역과 혈연, 학연 등 연고에 따른 '감정'으로 얼룩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여기에다 종교감정까지 겹쳐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투표 행위만이 유권자의 몫이 아니다. 부정감시도 유권자의 몫이다. 어느 후보가 돈봉투를 건넨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감시와 신고는 여러 사람의 피해를 막는 자비행위이기도 하다.

아울러 바른 후보자에게 선택하는 유권자의 노력도 요구된다. 통합선거법은 개인 및 정당연설회, 초청토론회 등 유권자와 후보자가 만나는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후보자들이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같은 기회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물론 유권자의 선택기준을 만족시키는 후보가 없을 수도 있다. 그중에 보다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책임있는 유권자의 태도이다.

최영지 <건국대 영문과 3년>

'김모씨는 00당에 입당하지 얼마만에 선거구 문제로 탈당했다.' 어떤 후보는 사람은 똑똑한데 조직이 없어서 안돼' 하는 이런저런 얘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의 대화내용은 정치얘기에 초점이 맞춰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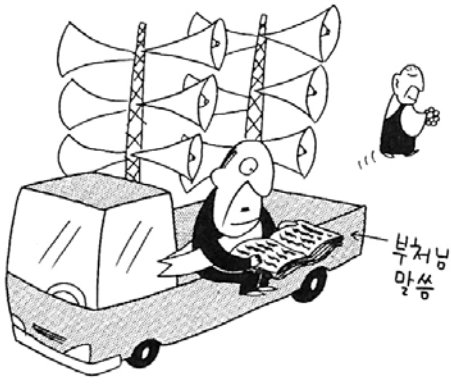
내가 유권자가 되어 우리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생각하니 책임이 무거워진다. 4·11총선이 다가오면서 신경점은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몇년에 태어나 무슨 일을 했다'는 악력과 선거철만되면 컬러색 홍보물 속의 인상좋은 모습과 광고성 문구만으로는 올바른 선택에 공정한 선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당과 후보마다 수많은 공약과 흡사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유권자들에게 혼돈만 일으켜 여간 판가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를위해 공개석상이나 언론을 통한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한다던 생각이 든다.

길을 가다가 기호별로 웃음짓는 후보들의 모습을 볼때면 시험지를 눈앞에 둔 수험생때처럼 느껴질때가 많다.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돼 국민을 위한 선량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라는 선거에 임하려고 한다.

공약 선택 혼란 공개 토론 했으면

현대만평



民心을 알아야...

목어

"송구스럽습니다. 변변치 않은 작품을 보여드리게..." 붓과 함께 佛母 65년. 그 흔한 개인전 한번 안가진 석정스님(중요무형문화재 48호)은 70 평생 처음으로 대중의뜻에 의해 열린 세종화관 전시장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잔잔한 미소에 말씀과 행이 조용하고 늘 겸손한 스님은 매사에 여유하다. '나 또는 내가'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냥 보살이시다. 이번 전시만해도 그렇다. 수차례 거절하다 스님의

어쩔수 없이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에 취임했다. 그러나 스님에게 총재란 직함은 명예나 벼슬이 아니다. 일을 이끌어주는 선지식의 지리에 불인 이름일 뿐이다. 스님은 한없이 겸손하다. 전시와 함께 철승기념으로 펴낸 시화·시문집에서도 '내 시인치고 불화가 어려워 회두중에 붓기는대로 그린 스님의 선묵에서 말이 끊어진 선묵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음도.

석정 스님

많은 그림과 글... 내 그림을 선화니 뭐니 한다는데 어찌 감히 범부의 그림에 禪字를 합부로...라며 당신을 지극히 낮추었다. 그러나 대중은 알고있다. 60년대말 화단에 '선서화'란 장르를 스님이 개척하셨음을, 그리

고 불화가 어려워 회두중에 붓기는대로 그린 스님의 선묵에서 말이 끊어진 선묵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음도. 석정스님은 묘한 인연으로 금강산에서 태어났다. 당대의 선지식 석두선사(효봉스님의 스승)와 숙명여고를 나온 신여성 이봉춘보살과 부모연을 맺은 스님은 3살때부터 불화나 불상을 보는대로 흉내내어 그렸다.

'금강산 선동 화가'는 13세에 부친 석두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송광사 김일섭 스님의 화법을 이어 오늘에 이른다. '법행' 그대로인 석정스님의 외길 정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새싹들 자라기 위한 부처님 말씀

몰라서 짓는 잘못이 화 더커

"알면서 악행을 짓는 사람보다 몰라서 악행을 짓는 사람의 화가 더 크다. 북에 달군 쇠덩어리를 알고서 장만한 사람과 모르고 장만한 사람은 어느쪽이 심하게 데이겠나."

(머린대양운경)

협찬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이사장 회장 김명운

4월11일은 깨끗한 사람 뽑는 날

Advertisement for the April 11th election. It features large stylized characters '소신' (Soshin), '정직' (Jeongjik), and '행실' (Haengsil) and images of people. Text includes: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 돼야죠!', '신세대요?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이라야죠!', '돈 안 쓰는 사람이 나라살림도 깨끗하게 합니다!', '행실이 올바른 사람을 찍어야지요~'

한표를 행사하는데는 1분 - 그 결과는 4년을 갑니다